



# 정교회주보

제2575호

2026년 5월 3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도 바울로가 제1차 선교 여행 중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데르베 근처의 탑 형태의 유적

## 부활 후 제4주일

### (중풍 병자 주일)

성 디모테오, 성 마브라 순교자  
성 베드로 아르고스의 주교  
(제3조 • 조과 복음 5)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32~42 .....253
- 복음경 : 요한 5,1~15 .....99
- 성모송 .....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17회] 신앙의 기초를 세우다

**데**르베에서 많은 신자를 얻게 된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다시 길을 돌려 리스트라와 이고니온, 안티오키아를 찾았다.(사도행전 14,21) 이곳은 사도들이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박해의 현장이었으나, 그들은 위협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사도행전 14,22)라는 권고는 고난이 신앙 여정에서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일깨워 준다. 이어 그들은 각 교회에 원로들을 세우고 단식과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사도행전 14,23) 이는 교회가 사도 계승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렇게 바울로의 선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조직하는 사목적 헌신 안에서 더욱 깊어졌다.

# 다비타의 부활 -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오늘 우리가 들은 사도경 말씀은 요빠에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비타(도르가)라는 한 여인에 대해 전해 줍니다(사도행전 9,36-42).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과부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드린 뒤 “다비타, 일어나시오.”라고 말했고, 다비타는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비타는 위대한 신학자도, 뛰어난 언변을 지닌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수 이웃을 섬기던 소박하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 주고, 그들을 도우며, 늘 그들 곁에 함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 진실하고 깊었기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녀를 다시 살리셔서 계속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고,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요빠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 9,42).

오늘 우리는 그녀의 본을 따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내어 주는 시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돌봄, (비유적으로든 실제로든) 지어 주는 옷, 나누는 음식, 위로의 말,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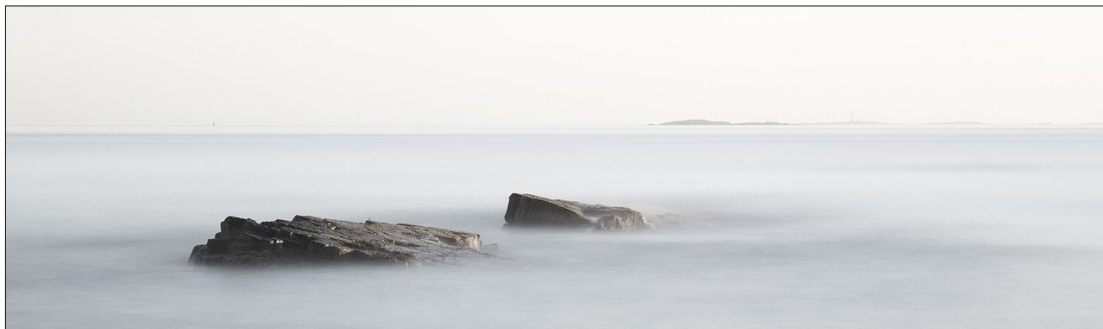
- 나는 매일 어떻게 내 믿음을 구체적인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 오늘 나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 내 주변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필요는 무엇인가?

참된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 죽고, 일상의 섬김으로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이루어집니다.

다비타는 가장 단순하고 겸손한 사랑의 행동조차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신앙의 알파벳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천문학자로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는 아이작 뉴턴(1643-1727)은 한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죽어 세상의 흠과 먼지 속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몸을, 그들의 불멸하는 영혼을 위한 새로운 몸으로 만들기 위해 누가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뉴턴은 말없이 한 줌의 쇠가루(쇠를 갈아 나온 아주 작은 입자)를 집어 보통의 흠과 섞은 뒤 물었습니다.

“이 쇠와 흠이 섞인 혼합물 가운데서 쇠가루만 분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큰 자석을 들어 그 혼합물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흠과 섞여 있던 작은 쇠조각들이 자석 쪽으로 달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턴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생명이 없는 금속에도 이처럼 강한 힘을 주신 하느님께서서는 분명히 불멸하는 영혼을 위한 새로운 몸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먼지 속에 흩어진 죽은 이들의 몸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이르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흩어진 몸을 모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며, 이 세상의 언어와 조건 안에서만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모든 것이 질문이 되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곧, 하느님, 영혼, 도덕성, 결혼, 가족, 사회, 국가, 이 세상, 그리고 또한 다음 세상도...

모든 것이 끝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서방의 과학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강철 빛과 같아서, 옛 상처를 긁어내고는 다시 새로운 상처를 냅니다. 참으로 이는 하데스(죽은 자들의 나라)의 왕자로서, 거짓 과학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혼란을 서방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가져왔습니다.

성 소프로니 수도사제(1896-1993, 영국 에섹스의 수도원 설립자)

## 주간 예배 안내

- \* 5월 6일(수)  
오순절 중앙일
- \* 5월 8일(금)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5월 31일(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 서울 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음향 시스템이 노후화와 여러 문제로 인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성니콜라스대성당)

## 알림

### ■ 체르노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 총대주교 메시지

지난 4월 26일 향유 가진 여인 주일에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 설교 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체르노빌 참사가 발생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참사는 인류의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결코 무분별한 무관심이나 파괴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총대주교님은 이 역사적인 비극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시키며 새로운 위험을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즉 적대 행위의 중단과 민간인의 생명 보호,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자의적인 파괴로부터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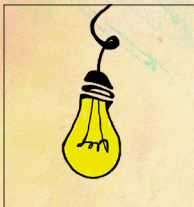
###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4월 25일(토),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Li Mark 유아가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 ■ 떼제 평화기도회 참석

지난 4월 24일(금)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떼제평화기도회에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대리로 참석하여, 떼제 공동체 매튜 원장 수사, 천주교 구요비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 대한성공회 김장환 주교와 함께 정교회를 대표하여 기도문을 봉독하였습니다. .

영성의 샹터



## 구원을 확신하며

언젠가 제자들이 스승에게 어떻게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한 번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나는 매일 매일을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네.”